



# 공작기계분야 개척자 康明順 박사

대담 / 李光榮 (과학평론가)

우리나라 기계공업 특히 기계가공과 표준旋盤 등  
국산 공작기계분야 발전에 평생을 바쳐온  
康明順박사는 오늘도 수원전문대 학장으로  
현역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박사는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세계에 명성을 떨칠 수 있게 한 개척자중 한사람이기도 하다.

■ 선생님은 연세에 비해 무척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이라도 있으신지요.

건강을 위해 특별히 운동이나 식이요법 같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껏 건강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 나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침 5시30분경이면 일어나 간단한 도수체조를 하고 신문과 TV 뉴스를 잠시 본 후 식사를 한 다음 7시 30분경 수원으로 향합니다.

퇴근하는 저녁 5시경까지 주어진 업무

를 본 후 각종 사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태어나 자라신 곳은 어디이며 그리고 젊은 시절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 평양고보 거쳐 경성제대로

평양 동대원리에서 1921년 11월15일 출생했습니다. 부(康嶺國) 모(禹成球)님은 다소의 토지를 갖고 농사와 상업을 하고 계셨는데 먹고 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특

히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통인 평성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후 평양고보로 진학(35년)했어요.

평양고보는 비록 공립학교이긴 했어도 한국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항일사상이 투철했지요. 평양고보시절 수학을 가르치시던 이선교(李宣敎)선생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지요. 선생님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고 착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자신이 그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 대학 진학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평양고보를 졸업(40년 3월)하고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응시했지만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재도전해서 이과 갑류에 합격했습니다. 예과에는 문과와 이과에 각각 갑과 을류가 있었는데 문과와 이과의 경우 갑류는 법학, 을류는 문학계통이었고 이과의 경우 갑류는 이공, 을류는 의학계통이었지요. 당시 경성제대 이과 갑류의 정원은 80명이었는데 3분의 2가 일본학생들이었고 나머지 3분의 1이 한국학생 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학생들이 경성제대에 들어가기가 수월치 않았어요.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23대 1의 관문을 뚫어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학생들의 경쟁률은 3대1 정도였지요. 내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한 1941년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해였어요. 그래서 3년의 예과과정을 2년6개월만인 1943년 7월에 마치고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기계과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예과에서 공부하며 기계공학이 모든 공학분야와 연관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택하게 되었지요. 기계과의 정원은 15명이었는데 한국학생에게 할당된 정원은 6명이었어요.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 무시험으로 기계과(43년 9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무렵부터 이미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1년쯤

되자 문과계열 학생들은 군에 징집되어 나갔고 이공계열은 산업체에 동원되었지요. 나는 부평의 육군 조병창에 동원돼 요소설계를 담당했습니다. 8.15광복을 이곳에서 맞았지요.

### 광복후 한때 평양서 교편

■ 광복후 혼란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광복이 되자 곧 평양의 부모님을 찾았습시다. 그리고 그 곳 평양협신공업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지요. 46년 평양에서 3.1절 행사가 김일성(金日成)이 처음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어요. 나는 3.1절 기념행사를 지켜보고 북한에 남아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서둘러 아내와 큰 아들을 이끌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내(楊正玉·70)와 만난 것은 경성제대 1학년 무렵입니다.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알게 된 평양고보와 경성제대 선배인 양동수(楊東秀·45년졸)씨로부터 여동생을 소개받아 1944년 결혼했습니다. 월남 후 곧 복교, 1946년 9월 졸업을 한후 잠시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평양고

보시절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이선교선생님의 큰 자제인 이종각(李鍾珏·대한제분회장)씨를 가르치게 된 것은 특별한 감회였습니다. 나의 대학시절은 말이 3년이지 실제로 공부를 한 했수는 1년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선생으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서울대 공대 전임강사(47년 9월)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기계제작소에서 기술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계공업 발전에 기여해 보겠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조선기계제작소는 일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기계공장이었는데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를 거쳐 지금은 대우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한국동란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나는 1950년 1월 아내와 3남매를 서울에 둔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미 경제협력국)자금으로 대학과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기계·전기·금속분야 과학기술자 9명에 대해 미국에서 신기술을 접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에 선발된 것입니다. 나는 한국 최초의 국방장학생 가운데 한사람이 되어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던우디기술원에서 6개월간 기계가공분야에 대한 최신 학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워싱턴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북한이 남침했다는 뉴스를 듣게된 것입니다. 가족의 안부가 몹시 걱정되었지만 귀국할 길이 없



▲ 강박사는(右)는 공학교육에 있어 이론에 치우친 교육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기술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들이 미국에 더 머물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9월 미국무성의 주선으로 일본 동경에 있는 미국동사령부로 날아가 통역과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일본어·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때 오천석(吳天錫)씨도 함께 일을 했어요. 이 곳에서 나는 국제적십자기구를 통해 부산으로 피난온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PO(군사우편)편으로 가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었지요. 부산에서 가족을 만난 것은 52년 말이었어요. 그리고 53년 1월 인천으로 가 조선기계제작소 공작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 인하대 직업훈련학교 개설

■ 산업계에서 학교로 방향을 바꾼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습니까.

조선기계제작소가 해군에 접수된 때 문이었습니다. 마침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이 설립한 인하대학에서 가르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교수로 임명(55년 4월)되었지요. 인하대학에서 기계공학부장을 맡아보며 현장실습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직업훈련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일하며 이론에 치우친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알게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서독의 지원을 받아 만든 직업훈련학교가 지금의 인하공업전문대학입니다.

■ 한양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보다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장을 찾아뵙고 서울로 오고 싶다는 뜻을 말했지요. 그래

서 한양대(1961년 9월) 기계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양대에서 산업대학원장(80년11월~85년7월)과 부총장(85년8월~87년2월)을 맡아 한양대 발전에 나름대로 일조를 했지요. 공학은 이학과 달라 이론만으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계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기술을 익히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의 산업은 현장 기술자와 기능인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우수한 기능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힘을 쏟았지요. 이같은 일로 해서 1967년 우리나라가 처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때 기술위원장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 대학에서 후학도를 기르며 우리나라 기계공업 그 중에서도 공작기계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압니다.

대학에 있을때 박사 10여명과 석사 40여명을 지도했지요. 또한 공작기계분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썼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국산표준형선반설계제작」에 이어 80년대 「베어링 수명시험기 설계·제작」과 「니들롤러베어링 제작방법 개발」을 했고 「절삭공구 공구각과 절삭력과 관계」 등 15편의 연구논문과 「최신기계공작법」과 「공작기계」 등 13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우수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능올림픽 국제조직위원회 명예회원으로 지금도 국제기능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참가해 일을 도와주고 있지요.

■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때 북한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 85년 평양방문 7촌 조카 만나

예, 1985년 고향인 평양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이 귀한데다 내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없어 7촌 조카를 만날 수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가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수원대학과 언제부터 관련을 맺고 계십니까.

한양대 부총장시절인 1987년 2월 정년으로 물러났어요. 한양대 명예교수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89년 수원대학교와 연결이 되어 대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대학원장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93년 수원대 전문대학장이시던 선배인 윤동석(尹東錫·작고)박사가 건강때문에 사임하시게 되어 그 자리를 이어 받게 되었지요.

■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봉사정신을 가져라”는 말을 들려 주고 싶습니다. 물질만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돈만 가지고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가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 봉사정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명순박사는 기계 특히 우리나라 공작기계 발전과 우수 기능인 양성에 끼친 공로로 석탑 산업훈장(67년), 국민훈장 동백장(72년), 대한민국의학기술상(73년), 은탑 산업훈장(78년), 5.16민족상(88년·산업부문), 고은 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기독교 신자로 총현교회에 나가고 있는 강박사는 슬하에 5남매(3남2녀)를 두고 있다. 57